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누구나에게나 자신만의 특별함이 있다. 흔히 성격, 성향, 기질, 유전적 소질 등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고유함은 곧 '나'를 구성하며 삶의 토대가 된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특성에 맞는 삶을 원한다.

각자의 소질을 발전시키고 완성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기실현 경향성'이라고 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1902-1987)가 말한 용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자기실현 경향성이 발휘되는 현실적 세상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조건을 억압하는 구조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가 차별적이거나 획일적인 조건들로 개인의 자기실현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모순된 상황과 경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에서 자기실현 경향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능력의 인정과 상호 신뢰 속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실현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자기실현의 방법과 과정에서

분노와 상실감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함을 느끼기도 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감정에 휩싸이며 좌절하기도 한다. 이 감정은 지금 당장의 모습과 능력만을 보고 무능과 열등함으로 평가된다는 불안을 일으킨다. 물론 이 정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아무도 현재의 자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언제나 '현실적 자기'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적 자기'의 두 모습으로 구성된다.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두 얼굴 모두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이 현재와 이상의 차이에서 성취를 위한 의지와 노력의 원동력이 생성된다. 다만 이 원동력을 어떻게 사용하며, 그 방향의 선택이 어느 쪽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적이다. 서로 다른 모습을 한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맹목적으로 충돌하며 상호 부정과 거부에서 오는 갈등을 크게 빛을수록 불안은 증폭된다. 불안은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정도를 넘어서 왜곡된 욕망을 부추기고 병적인 질주 정후로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정서를 압도한다.

그런데 통제를 벗어난 불안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숨어 있는 그림자다. 이 그림자는 현실 속 모습과 욕망된 '나'의 틈새에서 억눌린 분노와 원한, 실망과 열등감과 같은 숨어 있는 또 다른 나의 실체다. 숨은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일은 인간관계에서 크든 작든 자주 일어난다. 부모와 자녀, 좋은 친구 사이에서도 있지만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는다.

다만, 자칫 이상(理想)이 맹목적인 욕망으로 변질되고 망상과 현실의 경계가 뒤섞여서 무너지는 것이 문제다. 눈이 먼 욕망에는 방향성도 시간의 흐름도 없다. 숨

은 그림자의 본질인 피해의식과 원한·분노·열등감 등을 정당화하는 과거의 시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너는 운이 좋아서' '인맥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등등을 쉽게 말한다.

자기실현 경향성이 건강성을 잃고 정도를 넘어서 폭주하는 현상은 두 가지가 있다. 왜곡과 부인이다. 왜곡은 거짓말·위조·조작 등이다. 이것들은 욕망과 현실을 일치시키기 하기 위한 부정의 수단이지만, 유독 우리 사회에서 흔한 왜곡 현상이다.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을 속이는 정도는 수치스러운 것도 없는 듯하다. 여기에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주변과 세를 규합하면서 왜곡된 자기실현의 욕망은 집단의 정체성으로 합리화된다. 그리고 시대가지의 수호자라는 자기망상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래서 곳곳에서 깃발을 치켜들고 시대정신을 들먹이고 있지 않은가.

모든 종류의 맹신 중에서도 특히 맹목적 자기 확신이 가장 위험하다. 현실 상황과 진정한 자기실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한 확신이며 원망의 반동이기 때문이다. 이 원한 감정을 철학의 영역으로 불러와, 그 뿌리가 노예근성에 있음을 역설한 사람이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다.

그는 그림자가 가장 짝아지는 시간, 우연의 뜻에 갇히지 않으며 바로 그러한 노예가 아닌 주인의 시간을 정오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억눌린 맹목적 분노가 만들어 낸 반동적인 확신은 감옥일 뿐이다. 진정한 자기실현을 가로 막는, 그래서 꼭 결별해야 할 '숨은 그림자'를 위한 은신처인 감옥을 스스로 만들지는 말자.

기고



김포천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광주 공연예술을 위한 탐색

한 퍼포먼스'였다.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메타 퍼포먼스'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예술감독 한 사람의 힘이 공연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했다.

뮤지컬 도시로 특화된 대구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수성못 뮤지컬 프린지 페스티벌이 수상 무대에서 열렸다. 대구에는 1500석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이곳에서는 대구 세계합창 축제가 열린다. 올해 열린 제18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선 '아이다' '토스카' '윤심덕' 등 대작들이 공연되었다.

부산은 영화, 미술에 이어 공연예술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공연예술축제는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간 7개의 공연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부산 북구정에서는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를 주최하고 작년에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여성의 주도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담론을 펼치기도 했다.

대전은 공연예술과 과학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아 서울과 협업을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악쪽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전주는 소리 자산을 전복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제20회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한쪽이 전통 음악이요 다른 한쪽이 월드 뮤직이다.

오늘날 세계 공연예술의 트렌드는 다이나믹스, 디지털, 크로스오버로 요약할 수 있다. 민족적인 음악을 근본으로, 세계 공通的 언어와 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BTS 음악의 핵에는 한국 음악, 판소리의 고갱이가 들

어있다고 하지 않던가. K-POP과 함께 엠비유스 맨 스킵퍼니, 이남치밴드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의 공연예술은 세계인을 황홀하게 하고 있다.

광주는 6-25 직후 1950년대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을 때 홀로 한국 공연예술의 명맥을 지킨 지역력 있는 도시다. 그런데 지금 광주 공연예술은 어떤가? 각자의 영역에서 열정으로 창조적 작업에 몰두하고 있고, 평가 받을 만한 작품을 제작하는 공연예술가들도 있다.

그런데 허전하다. 폭발력을 가진,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공연 콘텐츠가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성마르게 시작해서 성마르게 끝내는 악순환이 문제다. 준비 기간도 짧고 지속성도 없다.

정율성 공연 하나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 언필칭, 정율성은 광주에서나 중국에서나 이제는 관심이 사그라진 것 같다. 20년간 기려왔지만, 결국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광주나 중국에서 제대로 된 정율성 음악회를 몇 번이나 해 보았던가. 전문가들에 의한 기획으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출했던 적이 있었던가. 배이징이나 하얼빈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열성적으로 교섭하고 협의한 적이 과연 있었는가. 광주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이만한 것이 없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정율성을 이끌어 올려야 한다.

지금 전국 각 도시의 공연예술은 코로나 방역에 유념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향해 강을 건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혁신이요, 탐색이다. 하늘에서는 구름과 바람이 요동치고 있는데, 땅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기고



정석운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위드 코로나 시대, 김장 김치로 이웃 사랑을

로 오가는 모습은 김장하는 날의 익숙한 풍경이다. 김장은 익히 알고 있듯 단순히 배추 한 가지로만 만들어지지 것이 아니다. 파, 마늘, 무, 생강, 갖 등의 갖은 채소와 액젓이나 젓갈 등 양념을 버무려 넣고 사뿐건 고추 가루로 마무리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또한 잘 어울려야 제 맛이 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드는 이의 정성이 담긴 손맛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변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안타깝지 그치지 않다. 예전부터 겨울철 김장 나눔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민족의 정(情)을 느끼는, 단순한 봉사활동 행사를 넘어선 그 무언가였다.

즉 김장은 우리 민족 삶의 일부이며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며 서로 돕고 사는 전통문화를 잘 드러낸 값진 유산이다. 이런 이유로 2013년 유네스코는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가을은 수확의 풍요를 느낄 겨를도 없이 부리나케 지나가고 추위가 다가오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누군가를 돌보기까지 해야 하는 최근의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 돌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청년)처럼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생계가 어려워 겨우살이 준비도 걱정인데 기부마저 줄어 더욱 불안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 기업·단체·독지가들의 참여가 많았지만 방역을 빌미로 김장 인심마저 잃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각박해질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여파로 어디에서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대규모 김장 나눔 행사를 예전과 같이 진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역병의 창궐로 고립과 소외를 비롯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사랑의 김장을 함께 나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자.

거듭 강조하지만 '김장 담그기'는 우리만의 전통적·창의적인 문화이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한국인의 정서이다. 김장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음을 나누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랑과 즐거움, 나눔이 있는 김장 문화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취약계층의 마음을 위로하는 선물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社說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멈춰선 안 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11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사흘간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2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금요일인 지난 19일 105명, 토요일인 20일 108명 등 연일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방역책이 전환되면서 도입 인원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리고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타 지역 방문과 모임이 활발해진 것도 확진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등 코로나 전파가 쉬운 여건이 조성됐다. 최근 전남 지역 17개 학교에서 닷새간 확진자가 100명(학생 63명 포함) 넘게 나오면서 급속히 확산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류독감도 무섭게 확산 '차단 방역' 강화를

최근 일주일 사이 전남도내 가금(家禽) 농장 세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농가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강진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H5N1형 AI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종오리 2만 43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전남에서는 울 들 어 처음으로 나주시 세지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어 19일에는 이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육용 오리 농장에서도 AI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농장 출입 통제, 집중 소독 등에 나섰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 인근에서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을 중심으로 257개 농가에서 오리 434만 마리를 사육 중인데 이는 전국(800만 마

리)의 54%에 달한다. 전남에서는 지난해에도 모두 2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38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한편 올 가을 AI가 발생한 농장 모두 선제적 정기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조기 발견을 위해 사육 단계별 혹은 도축장 출하 전 검사 등 선제적 진단 검사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보여 준다. 특히 산란을 저하나 폐사 증가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겨울철이면 늘어나는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야생조류에서는 지난 9월부터 고병원성 닷새 건, 저병원성 32건 등 모두 37건의 AI가 확인됐다.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가금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송광사 승보전에는 다양한 벽화가 있다. '여석부당'(如昔浮堂)이라는 벽화도 그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타고 가던 배가 난파돼 스님 다섯 명이 가까스로 '포낭'(包袱)에 목숨을 부지한다. 포낭은 가죽에 바람을 넣은 것으로 오늘날의 구명보트와 같다. 이때 사천왕에 딸린 여덟 귀신 가운데 하나인 나찰(羅刹)이 나타나 포낭을 달라고 한다. 스님들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나찰은 절반 아니 일부만이라도 떼 달라고 간청한다. 그

리나 스님들은 조금의 가죽도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틴다.

'여석부당'은 계율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 설화다. 만약 가죽 일부라도 나찰에게 떼 주면 포낭은 바다에 가라앉고 스님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수도자는 규범과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단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터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종교서점 이벽에 이목을 끄는 벽화가 또다시 등장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된 네 컷짜리 삽화다. 윤 후보의 장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과 손바닥의 '왕'(王) 자, '개

화' 등은 모두 그러한 시대의 산물이다. 앞서 언급한 벽화 '여석부당'은 법과 원칙이 공동체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의 주변은 어떠한가 하는지 자명해진다. 많은 의혹이 벽화라는 형식으로 그려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정치적 논란을 경계해서 벽화를 판자로 가린 건물주의 입장이 이해는 된다. 다만 벽화(壁畵)가 공공성 의미를 억압하는 '벽화'(壁畵)로의 변질이란, 공론의 장을 구현하는 '담화'(談話)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